

민족문화수호 100일째 ‘제자리’

구호와 의지만 범람... 부실한 실천 계획 속 자성과 쇄신 의지 의문

조계종이 야심차게 추진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가 100일 회향을 맞았지만 여전히 구호뿐인 말잔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23일 조계사에서 ‘민족문화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임재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은 1080배 정진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법문과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종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민족문화 수호 활동은 지극히 현실적인 종단의 해결 과제이다. 임기 동안 꾸준히 추진해 3년 후 종도 여러분과 축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5대 결사 실천지침은 100일 전 신년 담화문 발표 때 제시된 5대 결사 주요내용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행 결사에서는 여법한 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 현대 사회에 맞는 수행과 수행 문화 제시 등이 제시됐다. 문화결사에서는 종단 자주권 확립 위한 제도 개선, 지적 사찰 문화재 보호 등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명결사에서는 에너지 10% 절약 실천, 빈그릇 운동 생활화, 나눔 결사에서는 기금 마련과 제도 정비, 사부대중의 1% 나눔 운동 생활화가 제시됐다. 평

화 결사에서는 종교간 화합, 이주민 문제 해결, 남북 평화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신년담화문에서 교구별, 지역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결사 운동의 의지와 각 분야 스님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5대 결사 실천 계획은 진정으로 불교계의 지혜가 모아진 결과물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가 100일 정진 회향을 맞았지만 25개 교구 분사 중 교구분사별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마친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 4월 중 8개 교구가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예정 중이다. 일정을 논의 중인 곳도 6곳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5대 결사 실천 방안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구들도 결의 이후 뚜렷한 실천 행동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마친 교구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의대회 이후 실천 사례로 제시할 만한 것은 없다. 추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선은 총무원의 지침을 따르

는 것이 순서다”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민족문화수호결의와 5대 결사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여 실천의지에 의문을 자아냈다.

3월 1일 불교를 포함한 4대 종단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예정했다. 그러나 각 종단이 예정대로 4대강 사업 반대 기도회를 진행한 반면 불교계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관련기사 3면)

‘생명 결사’에도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 대중공사 부분에서 ‘4대강 문제 돌아보기’가 포함돼 있을 뿐이다.

조계종은 또 민족문화수호를 외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불교계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안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계종은 사찰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사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민족문화수호 100일 회향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실천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찰들의 불사가 가능해졌다. 종단은 건축, 환경, 조경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적 가치가 큰 불사를 비롯해 사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찰의 불사를 심의해 무분별한 불사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개정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을 환영하며 환경부와 논의해 원만한 후속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이익은 챙기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하지만 총무원이 민족문화수호를 전명할 때부터 사찰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 문화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 예산에 의존하면 안되며 자립자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범용 스님도 “100일 회향에서 총무원의 내실 있는 자성과 실천 방안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웠다. 관공석은 가득 찼지만 그라운드에서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정책특보

천주교의 참회

조계종은 3월 23일 총본산 조계사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해 사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우리 불교는 과연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였는지 겸허하게 되짚어보자는 것이 바로 자성과 쇄신 결사”라고 말했다.

자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일은 천주교의 참회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천주교신자 증가 이유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나는 2000년 3월 1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미사를 올린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날 천주교는 십자군전쟁, 마녀사냥재판, 유대인 박해, 여성 및 소수민족에 대한 과오, 인권침해에 대한 과오 등 교회가 저질러온 과거범죄에 대해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는 미사를 올렸다.

천주교의 ‘회상과 화해’라는 제목의 과거 범죄에 대한 참회에 대해 독일 튀빙겐 대학 신학과 칼 요제프 쿠엘 교수는 ‘혁신이 따르지 않는 사죄’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가했지만, 교황이 나서서 과거 역사상 한때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한 수단과 행동으로 교회의 명성을 더럽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천주교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을 통해 불교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참회가 있어야 한다.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의 실천과제로 1사찰 1복지시설 결연 봉사, 1불자 1회 1수행 등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불교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

왜 자성을 이야기하면서 일부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명성을 더럽히면서 저질러온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어떤 스님이 오사카에 가서 수천만원을 도박으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비정규직 젊은이들이 한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돈이 고작 80만원이다. 일년내내 한 푼도 안쓰고 모아봤자 960만원이다.

정말 우리 불교는 참회할 것이 없는가?

자승 스님, “불교 홀대 私心 때문, 公心 가져야”

통도사, 자정과 정체성 회복 위한 결집대회

“불교가 국민과 사회, 정치권으로부터 홀대 받은 것은 사실을 갖고 사유화하고 욕심을 내왔기 때문이다. 원력과 신심뿐만 아니라 공심(公心)이 있어야 한다.”

양산 통도사 3000여 사부대중이 3월 1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자정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결집대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공심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사심(私心)을 가지고 사유화하고 욕심을 내왔던 것이 국민과 사회, 정치권으로부터 불교가 홀대받은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이 자성과 쇄신 결사의 배경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2000만 불자라 하지만 불자라고 당당히 나서서 사람이 없다. 불교를 쉽게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한목소리와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스스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변화 하지 않으면 정체성 회복과 자정 결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정부의 무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우 스님은 조선시대 표창사는 승려였던 소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도사 법당, 천성산 내원사 등 81개 사찰이 소실된 사실을 설명했다.

스님은 “2000여 년 세월동안 아픈 시련 속에서도 우리 불교는 민족문화를 지켜왔다. 옛 글에 보면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무식하든지 무지하든지 하다고 했다. 우리 불교는 대승보살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이는 총무원장스님이 제안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결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가한 대중은 통도사 포교국장 정도 스님이 낭독한 실천지침을 통해 “수행결사 동참제자 등은 절 참배가 있는 날, 육식·음주를 금한다” 등의 수행, 문화, 생명, 평화 등 각 결사의 실천지침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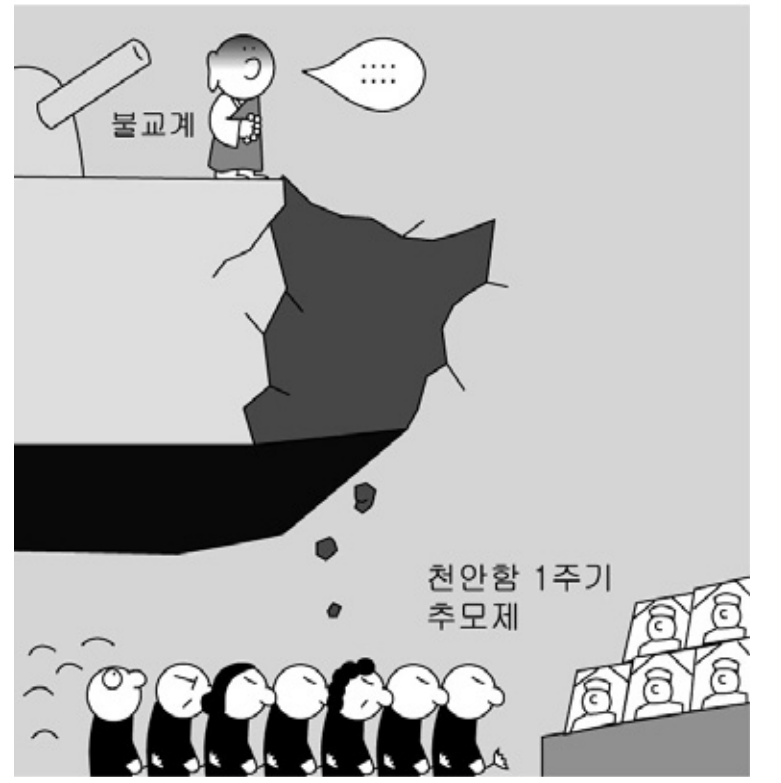
통도사가 자정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이어 참가대중은 대회 후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통도사 적멸보궁 사리탑을 참배하며 한국불교가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신뢰받는 종교, 자성과 쇄신 결사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한편, 통도사 사부대중은 지진 대참사로 고통 받는 이웃 일본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1억원은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일반 모금 활동에 기부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추 원효보살 열반 1325주기 추모대재 모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의 스승 원효보살 열반대재에 불자여 함께 모여 추모 합시다

일시 : 불기2555(2011)년 4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원효보살 성상앞 (용산구 효창공원에)

- 증명 : 벽송
- 지도위원 : 창해, 해초, 혜담, 법성, 호성
- 봉행위원장 : 향운
- 봉행부위원장 : 운오
- 집행위원장 : 진산
- 집행부위원장 : 일륜, 도암, 효산